朝鮮日報 夕刊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臨床과 學位授與資格
博士의 濫造를 避할라

一

最近 東京通信에 依하면 今後 文部省은 醫學博士 學位授與의 資格으로 臨床에 經驗잇슴을 必須하리라 한다。 日本內地에서는 今後 醫博이 되랴는者는 臨床經驗이 잇는者라야만 學位를 엇게될것은 十分斟酌하거니와 朝鮮에서도 學位를 엇는데는 文部大臣의 許可를 要하는 것이 이 條件이 朝鮮에도 適用될것은 自明한 理致다。 아즉 學界가 發達되지못한 朝鮮이라 되도록 學位엇는 이의 多數될것을 希望하는 點으로 보아서는 多少 悲觀的 資料가 될지모르나 博士라는 學位는 社會의 敬仰의 的이되고, 特히 醫博은 人生의 生命에 關한 責任을 지는만큼 그 條件에 까다로운것을 부치는것은 社會로 보아 반가운 消息이라 하겟다。

二

從來 西洋서도 그러햇지마는 日本서는 醫學博士의 數爻가 産出이 的比較 만엇다。 昭和九年三月末現在 日本內 醫學博士의 數를 보면 無慮六千五百餘人으로 全博士數中 거이 八割을 占하고 一年出生數 七百人으로 一日平均二人의 出生率이다。 博士中 醫學博士의 數爻가 만코 또 多數 出生하는 理由로는 醫學이 他人文科學에 比하야 最新의 學問이오 또 細密히 分科的으로 되어잇스므로 硏究할 對象이 比較的 單純한것이다。 그뿐아니라 特히 醫學은 人命에 關한것이 때문에 그 取扱하는 이에게 權威를 주는 一層 患者의 信念이 두터워지고 따라 社會的으로 보아 利益이 만흔것이므로 國家으로서 多數를 製造한다。 醫師는 仁術이라하야 營業稅를 免除하고, 여러가지 恩典을 주는것도 이러한 社會的 意義에서 나온것일것이다。

三

그런데 최近 醫學界 又는 醫藥界를 보면 間或 學位를 가질만한 品位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잇스며, 또 或은 學位를 가질만한 經驗과 技術을 具備지 못한 사람이 잇다。 勿論 多數한 博士中이라 間或 無資格한 사람이 엇슬수도 업슬지나, 社會的으로 敬仰의 的이되고, 患者로부터 信任을 바드며, 國家로부터 特別한 恩寵을 밧는 醫師、博士로서 一、二人에 이런 事實이 나타나드래도 그것은 醫師、博士 全體를 聯想하게 되지오, 全體의 資格을 疑心하게될지니, 이 學位授與에 對하야 資格을 一層더 嚴重히 考査하는것은 學位를 어드랴는 學徒들의 立場으로보나 社會의 全體立場으로 보나 다 有益한 일이다。

四

一部에서는 이 新規에 對하야 兩者의 利害를 들어 異議를 論할 사람이 잇슬지도 모른다。 그러나 西洋과 가튼 一般人民의 知識的、文化的 水準이 노파 學位等에 對하야 心을 가지지 안코, 東洋서와 가티 그다지 好奇 저 안는곳과 事情을 달니 東洋에 適用하라는것은 一種에 錯覺이다, 좀더 資格이 具備하고, 實的으로 훌륭한 學位 가진이를 輩出시키는것은 學位맛는者, 特히 醫博의 學位 밧는이에 對한 一般의 信任이 讀日에 比하야 多少 低下한 感이 잇는 近日에 잇서서 매우 切實한 要求다 이 點으로보아 今番 文部省에서 醫博學位授與資格의 하나로 臨床經驗이 잇는것을 必須條件으로 삼으랴 나는 提議는 極히 有效한 提案이라 생각한다。

廢棄後國際政局과 米對策이 注目點

正式通告實施는 廿七日說有力

外交手續으로 重大視

【電通華盛頓廿二日發】 華盛頓朝鮮在日本大使館側의 意見을 綜合하면 齋藤大使가 華府條約廢棄通告를 國務長官에게 手交할 時期는 크리스마스前日即 二十四日午前이 可能함에도 不拘하고 種種考慮한 結果 크리스마스後로 延期한 모양인데 二十六、七兩日 特히 二十七日에 正式通告實施가 잇스리라는 見解가 有力하다 그리고서 外交手續으로서는 右는 極히 重大視되여 잇고 一般의 關心은 이미 東京의 閣議와 樞府에서 廢棄가 確定된 時期를 絶頂으로 只今은 低下되고잇다 廢棄는 벌서 單純한 旣定事實로 一般의 注目은 廢棄後의 國際政局 特히 米國自身의 對處策에 對하야 集注되여잇다

條約廢棄에 對한 米政府對策決定

刺戟的言動은 回避乎

【電通華盛頓二十二日發】 米國務省은 日本의 華府條約廢棄後의 對策에 對하야 海軍省其他關係當局과 크리스마스休暇前에 妥協을 遂한 結果 二十二日 마침내 根本方針을 確立하게 되엿는데 其要點은 如左하다고 確聞한다

一、官民을 通하야 刺戟的 言動을 삼가 日本朝野와의 和親을 主旨로 日本의 强硬論者에 燃料를 供給하는 일이 업기를 期할것

二、條約有效期限인 一九三六年末까지의 期間에 一層親密한 對英協力工作을 進行하야 英美間의 諒解維持增進을 期할것

三、英으로 하여금 日本의 平等權要求에 對하야 될수잇는데로 反對態度를 取하게 하도록 努力할것

四、條約所定의 範圍內에서 建艦은 冷靜且 着實히 續行할것

五、一九三六年末以降에 잇서서 發生可能한 모든 事態에 關하야 諸機關을 總動員식혀 廣範圍且 徹底的 調査硏究를 行할것

親日派의 態度로 英米協定不成立

英「스타」紙衝動的論評

【倫敦二十二日發聯合】 二十二日스타紙는 最近米國代表데비스氏가 英國側에 對하야 英米紳士協定을 提議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失敗하엿다는 報道를 揭載하야 센세이슌을 惹起하엿는데 其報道의 要旨는 左와如하다 데비스氏는 太平洋平和를 目的으로 太平洋에 잇서서 政治經濟海軍問題에 關한 英米紳士協定案에 對하야 英國閣內의 親日派勢力과 各日의 意見對立에 잇서서 有力한 親日派勢力과 各日의 意見對立 및 統一되지못하야 成立되지못하엿다 即 英米共同戰線을 主張하는데 對하야 濠洲、뉴질란드는 日本에 對하야 非友誼的인 感을 抱하는 것을 反對하는 國家이다고하야 云云

六、英米協定의 會議中에는 自他的 潛在的勢力을 强化키 爲하야 三國海軍力 均衡의 自由的原則에 依하야 互存하기로 決定하엿다는 것 ... 그리고 此情報는 自然的發表 主張하는것이다 하나 이에 反對한 報道는 全然根據가 업다고 否定하엿다 消息通筋에서는 不成立에 對하야 失望하고 잇다는 듯한 報道가 낫다 ... 報道를 否認하는 모양이다

「싸이먼」英外相 佛外相과 會見

◇英國軍縮案을 說明

【巴里二十二日發】 싸이먼英外相은 크리스마스休暇를 利用하야 南佛海岸리비에라에 赴하는 途中二十二日 巴里에 들려라 佛外相과 會見하고 軍縮問題의 將來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但其將的 方法은 아직 決定하게 되지못하엿스나 이번外相은 日英米海軍會商에서 提示된 英國軍縮案을 說明하고 佛國에 要請하야 佛國政府의 軍縮案은 華府條約이 廢棄된後에잇서서도 現在의 諸協定의 可及的 存續을 圖하야 世界平和와 海軍競爭의 防止를 期하는 것이라고 述하엿다한다 且 佛國에 對하야 協議함과 共히 諒解를 求하고 佛國에 要請하야 軍縮會議에 協力할것을 提議하엿다고 한다

人事·集會

◇李晋鎬氏(陸軍騎兵一等主計) 步兵第七十五聯隊附赴任 本社來訪

八面鋒

◇兩廣派는 藍衣社의 解散을 强硬히 主張, 中央은 統一을 主張

◇하나는 弱者의 하소연, 하나는 强者의 힘으로서의 統一。

◇强者는 弱者를 위하는 法이지만, 德업는 支配는 長久치 不有。

◇東北、西北方으로 移住한 災民 飢寒으로 呻吟。

◇설은 닥쳐오니 一層 鄕愁가 가득할셈。

◇冬至가 지나도 日氣가 春日가다。 明年 豊作의 徵兆? 疾病의 流行 惡兆?

◇市內 要處에서 歲末 慈善 냄비。 만히 同情합시다。

本紙今年掉尾의 大飛躍

二十五日부터 新活字採用

活字改鑄와 紙面의 刷新

만천하독자로부터 「조선서일보」이란 무거운기대를 질머지고 날로 날로 비약위한길을 밟고잇는본지는 희망에찬새해를 코압헤두고오로지 조선문화를위하고 독자에게대한 봉사정신의 한끗으로 또한차례 눈부신 비약을보게 되엿습니다。 그것은 활자개주(活字改鑄)와 지면쇄신(紙面刷新)이란 신 지면혁명으로 크나큰 의의를가진 두가지 사업으로 오는 이십오일부터 단행하기로 되엿습니다。

一、活字改鑄

종래로사용해오든구식의 활자주조기(活字鑄造機)를전부버리고 금번에 조선신문계에잇서서는 시험도 드믄 럿든의 분동안에 일백삼십자식 주조능력을가진 만년주조기(萬年鑄造機) 네대(臺)를사 드렷습니다。 이와가티 초고속적능력을가진 주조기로매일 계속적으로 활자를 만드러 이제부터는 한번 사용한 활자는 그대로 버리고 언제든지 새활자를 쓰게되여 이에따르는 인쇄는 다시업시 선명하고도 미술적인 쇄놓보여줄것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새로 개주되는 국문활자는 기발(奇拔)을 피하고 구태(舊態)를 버서 버려 「읽기조코」「보기조흔」 활자를 「모토」로 인쇄계에 새「에포크」를 지을것을 스사로 기약합니다。

二、紙面刷新

이와가치 새로 만든 활자는 브피를 「칠호포인트」반으로부터 「칠포인트」로내리워 종래의한줄 열넉자를 한줄 열다섯자로 쓰게되여 그신문 지면이건너는 기사의 분량은 매일 열단(段)이상으로 늘게됩니다 실제에잇서서는 본지는 한 페이지를 더 발행하는폭이 되여잡니다 따라서 내용에잇서서도 분량과 질(質)을함께 확충식혀 「조선제일」신문으로서의 빗나면목여 한결 더 찬란해질것을 독자와함께 즐겨하는바입니다。

(사진은새기계로서활자만드는광경)

皇太子殿下 御誕辰祝賀

兩陛下께서御滿悅

【東京電話聯合】 今日의昨日에宮中大奧에서는皇太后陛下御附進의御台人形을 爲始하야 民草의 赤心으로 奉祝의獻上品을 華麗하게 裝飾하시고、早朝皇太子殿下께옵서는 伊地知御養育掛添仕로 御淨身하신後 金糸繡然히빗나는 菊花御紋章을 配하신純白御服에 御正裝을하시고 伊地知御養育掛에게 안기시우사 御兩親陛下께 御對面하섯다 이리하야 午前十時에 陛下께옵서는 皇太子殿下와함께 湯淺宮相、牧野內府、鈴木侍從長、本庄武官長、廣幡皇后宮大夫以下의 拜賀를受하옵시고다음同十一時에御參內하신秩父宮同妃兩殿下를爲始하야各皇族의御祝辭를受하옵신後 正午御食堂에서 兩陛下皇太子殿下三內親王殿下와함께 御祝膳에 就하시사 御歡談을 하섯다 一方午前十時前後하야 參賀被仰付된 宮內官一同은후록크、모-닝等으로 參內하야 全宮內官凡二千名이進修節에 參集한後 湯淺宮相의謝示를受하고 宮相의發聲으로三陛下 皇太子殿下의 萬歲를三唱하고도午後六時부터御學問所에서御內宴을베프시고 陛下三內親王殿下께서도 出御하시고 牧野內府、湯淺宮相以下側近奉仕의 高等官도 御陪食을被仰付되엿다

日蘭會商遂休會

長岡代表二十五日撤退

【東京電話聯合】 二十一日巴達比亞에잇서 長岡런네프트日蘭兩代表間의 最後會見內容은 二十二日外務省에 公電이到着되엿는데 前後七個月이란長久한時日에亘하야 日蘭會商도茲에休會하고 一切將來에其成果를求할수잇게엽는 事情이라는것이判明되엿다 即右正式會見에잇서 日蘭兩首席代表는 此際따로 宣言案又는 공뮤니케와如한것을發表치안코그대로會議를延期하는것이妥當하다는데 意見一致되여 各其本國政府에 右休會案에對하야 請訓을發하엿는데日本側으로서는 會商繼續은어데까지 此際主張하드라도兩國間에서 交涉의基礎가될 具體的回答이업슴으로 現在대로는不得已一時休會를 認定하게되는바 따라會商休會를認定하고 長岡代表는 二十五日木村顧問은 二十二日에歸國途上에오르게되엿다

日曜氣配

◇株式 當限無事納니와 春高豫想으로 買氣盛旺하야强含어나 月末關係로波瀾含

大新	九三、一
東新	一四三、五〇
鐘新	二九、五〇
日產	一〇五、五〇

◇期米 ‖ 産地의 正米는下落이나週末買上發表好感으로押目買氣에 引締이나今買上價額消極的임임이 憂慮

◇綿絲 ‖ 不變

今日本紙四面

國策審議會牢定

岡田內閣이 誕生하든때부터 國策審議會의 設置가 問題되얏섯스나 政友總裁鈴木氏의 反對表明으로 意外의挫折을當케되얏든바 最近政友會가 會內의內訌으로 不利한地位에 빠지고 高橋氏의 藏相就任으로 岡田內閣도 强化됨에딸아 國策審議會의設置를 牢定하얏스니그目的은擧國一致하야非常時局打開에잇고 그審議內容은 國防外交를 除한以外 財政經濟産業 思想等各方面에 亘하리라고한다。

條約廢棄의手續

華府條約廢棄는 樞府本會議의通過를맛아 國內手續을完了하고 卽時齋藤駐米大使에게 訓令을發하는同時 海軍當局에서 聲明書를發表하얏다。

新黨發會式擧行

政友會脫黨組는 內田、床次、山崎三相以下諸人은 二十二日 水戶市에서 新政俱樂部라는新黨의發會式을 擧行키로되얏다

公定米價의決定

本米穀年度의公定價格을決定할 米穀統制委員會에서는 十七日審議한結果 最高三十一圓五十錢과 最低二十四圓三十錢으로하기로되야 結局昨年보다各一圓高를 보이고잇다。

藍衣社解散要求

中央의態度强化로 西南派와의妥協工作은도로惡化되게되야 孫科氏도 辭表를提出하얏다가 撤回키에이르럿거니와 西南派는 藍衣社의解散等에條件을要求하야 中央側을困難케하고잇다。

郭테兩氏의密談

米代表데비스氏는 豫備會議의休會를딸아 위선米國으로가게되얏거니와 休會의第一日인 二十日駐英中公使郭泰祺氏의訪問을바다가지고 두시간동안이나 中國領土保存原則에關한密談을行하얏다。

豫備會商은休會

十九日 三國代表正式會議를 最初이며最終으로開催하고 英首相맥도날드氏의司會로 議事를 進行케되야 無期休會를決定케되얏는데 松平代表는再開日字까지決定하야 宣言中에너키를 主張하얏스나 英米代表의反對로 드듸어그主張을撤回하게에 이르럿스며 會議가끗나며곳三國公同宣言을 發表케되엿는데 그宣言의內容은 會議再開에對하야何等具體的議論이업고 오즉漠然한說明에끄칠뿐이다

佛蘇軍事同盟說

요즘佛蘇間軍事同盟의交涉이 進行中에잇다고하야 佛政府當局으로하야금 否認의言明을行케하고 또그以後佛蘇協定도 오즉東歐로카르노條約을締結할前提임에끄치지안하야 各國으로하야금 疑心을노케하더니 最近佛蘇兩國間에는 다시獨을假想敵으로삼고 互相扶助의 軍事的秘密協定을行하얏다고하야 各國이다시緊張함을마지못하며經濟政府에는드듸어兩國協定의正文을公開키에이르럿다。

軍備技術의進步는 締約當時와그情勢判異

蘇聯邦의空軍海軍도大擴張

駐米山口大使館附武官聲明

【電通華盛頓廿一日發】 日本大使館附武官山口大佐는華府條約廢棄通告를數日後에압두고米國民間에存在한 誤解를一掃키爲하야 二十一日說明書를發表하야左와如히强調하엿다 一九二二年華府條約이 調印된以來軍備技術의顯著한進步는 豫想하든바와는全然判異한 情勢를展開하야바야흐로右條約은國防平等權其自身을參際하는不合理한存在로變化하엿다 他方蘇聯의空軍及海軍의大擴張도엿슴으로日本은패리티(均勢)를要求치안을수업는 立場에서게되엿다 今後國際間의 安定을保障하는것은共通保有量最大限의設置가唯一의最良策이며 世界平和는此에依하여서만 完全히維持될것이다

오케-레코-드

定價 赤盤 一圓五十錢 黑盤一圓

赤 크라쓰 거룩한 밤
마쓰송 主여 引導하소서 — 테너-獨唱 李寅善 / 테너-二重唱 李寅善·李有善
赤 테너- 라 파로마 (西班牙民謠)
獨唱 마리아·마리 (伊太利民謠) — 獨唱 李寅善 / 伴奏·오케-管絃樂團
赤 提琴 導入部와舞踏曲
獨奏 一二三(사라사테曲) — 獨奏 安炳玹 / 피아노伴奏 케이·제·링
流行歌 외로운꿈 / 그리운 녯날 — 獨唱 高福壽
流行歌 漁村落照 / 등대불과 개나리 — 獨唱 李蘭影
合唱 사랑의노래 / 즐거운靑春 — 高福壽·李蘭影·金福影
水宮歌 禽獸爭鬪 / 春香傳 離別하려가는때 — 林芳蔚·金素姬
短歌 南原山城 / 水宮歌 鼈主簿母親離別 — 吳翡翠
伽倻琴並唱 皇城途中방아찟는데 (沈淸傳中) — 吳太石
海西雜歌 黃海道난봉가 / 海西民謠 둥둥이타령 — 崔豊川
京畿巫 제석거리 / 대감노리 — 申海中月
南道雜歌 새타령 — 吳翡翠·金素姬·吳太石
古代小說劇化 薔花紅蓮傳 — 申不出·車紅女·申錦紅·金曉山
딴쓰 벽창호 — A 申不出·申錦紅 B 申不出·金曉山
赤 正樂 靈山會像 — 大笒獨奏 金桂善

兄弟酒店

本店은 其間事情에依하야休業中이든바今月二十一日부터開業하얏사오니 諸位께서는 從前愛顧하야주심을伏望하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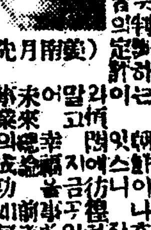
京城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番地 兄弟酒店 白

風病

大風病을 爲始하야 一般風病症狀이 完全治療되는 本劑 ... 回春藥院 謹告

奇人神談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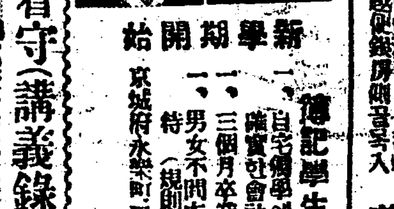


姜南月先生

姜南月觀相所

京城府東大門崇仁洞六八七番地

新學期開始



一、速記學生徒募集(講義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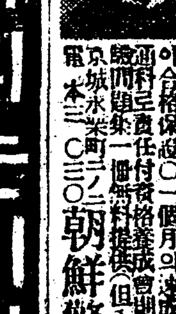
一、三個月卒業으로 最新高等速記學을 敎授

一、男女不問本會卒業證一枚로就職先敎待 (規則書進呈要二錢切手)

京城府永樂町二ノ一 電話本局三〇三〇

第一高等速記學會

巡査看守(講義錄)夜學도開始



朝鮮警務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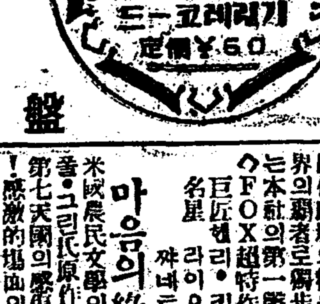
부자되는비결

全國百貨店書店 ... 千餘名 ... 大阪大仁元町日本商工通信社 定價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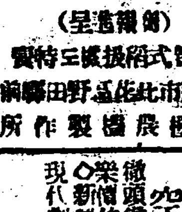
마음의綠野 / 空軍의覇者 / 天國突進

豫告 團成社

大衆歌盤



製繩機



(新案特許) 不撓機械製作所 大阪市此花區野田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光二四九

化粧品界의 最高峰出現

東光クリーム

東光ポマード

東光椿香油

東京市城東區龜戶町四丁目 林茂商店

訃告

嚴父東先氏以宿患 陰今十一月十五日午時逝去茲以謹告

嗣子 金晟煥

護喪 蘇在昌

草根木皮조차皆盡 吉州에離鄕民續出

生路를차저甲山山谷으로

惠山線列車連日混雜

【吉州】 길수지방에도근년히 흉년으로말미암아 길수군 하니 널니어잇는수만은세민들이 생로를 극히위협하고 다고 하며 그중에도 혜산선(惠山線)연선에 산재하여잇는 봉암(鳳岩) 남석(南夕) 재덕(載德)등이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일반여의세궁민들은 가을에추수라고 하여 약간의곡식을 거더드린것을 가지고 즉쉬수고 나무검질싸쏠뿐리를캐여서 근근히 연명하여오든상 그것조차 끈허저서어린자식과 늙은부모를거느리고 정든고향을떠나서 생로를차저 갑산(甲山)방면으로 이주하는 리향민이날로 격증하여 혜산선(惠山線)열차안에는 이러한리향민으로매일 가리대혼잡을일운다는데 그 참상은 보는사람이 눈물업시는 대하지못할 비극을 연출한다고 한다

朝鮮서도不足한 食鹽密輸出盛行

一年間滿洲가는것二千萬斤

取締法規不備로困難

【新義州】 조선서산출되는소금으로는 조선안의 수요(需要)를 만족식힐수업고 도로혀 년년외국제의 가공한소금이 수입되는 터임으로 조선총독부에서는 소금의수출을 극력방지하려고 하는중이나 조선의 소금갑은만주의소금갑보다 절반이되는 협갑임으로 조선에소금은 잠상(潛商)들의손을것처 압록강과두만강을작고 건너가게 되는데금년중이와가치 밀수출된소금 어천반근(斤)에 달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만주국에서는 소금에대하야 판매와관리를 알뿐이오 철저한법령이 업슴으로 그취체는 극히완만하고 단자관세법(關稅法)제칠십륙조에 의하야 행정처분(行政處分)으로 허가업시 수출하는것으로 인정된경우에 벌금으로 그가격의일할을밧고 현품도 압수치안이함으로 밀수업자에게는 별로큰위협을 늣기지안케된다 따라서소금밀수출은 더욱왕성하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법규상 근거가업슴으로 신의주 전매지국에서도 신의주세관에 대하야 현법제십구조의 규정을적용하야 현품을 몰수하여 달나고 교섭하얏지만은 세관에서는 그와가티할수가 업다고 언명함으로 이에 관한 다해법을 새로히 제정하지안는한 소금밀수취체는 매우곤란하리라 한다

明日부터는 漸次치워진다

京城測候所員談

추어야할 동지(冬至)때의 기후가 도로혀 봄날세와가티따뜻하야 아삼이일(동자날) 서울서는 최고온도오도 부산가튼데서는 칠도라는 노픈온도를 뵈엿스며 이십삼일아츰에는 최저일도,정오에는 삼도이엇는데 방금 몽고(蒙古)방면으로부터 우세한 고기압(高氣壓)이 조선으로 퍼저오는중임으로 래일부터는 점점날세가개여지고온도도나저저서 추위지리라한다 따뜻한끄테 갑작히 추워지겟스니 감기에걸리기쉬웁다 모다들 미리부터주의하여야하겟다

◇繁雜한歲末街頭……금일 종로거리에서

城津稅務署落成式

【城津】 성진세무서락성식은 지난 이십일오후이시 신청사에서 하흥세무감독국장 대리유괴(楡崎)세무부장금갈성(今葛城)량군관민유지 백여명의 렬석하에 성대히신축락성식을 거행하엿다한다

栢梁公普開校 (鐵山)

2는이석화일에 청산군 백당면 도암동공회당(鐵山郡栢梁面道岩洞公會堂)에서신천백량면 공보교의개교식이열리라고한다

安全地帶의慘事 馬車夫가轢死

黃金町서自動車에치워

새벽거리에서 일어난 참변— 경성부 위생마차부인 부외신당리(新堂里)리청훈(李靑薰)(三五)은이십삼일 새벽다섯시 오십분에마차를 끄을고 부내영락정정류소(永樂町停留所) 안전지대(安全地帶)아폴 지나다가 그때마츰 그곳을질주하든 부내원정(元町)이정목 팔천대(八千代)【택시】운전수 조병규(趙炳奎)(三五)가 운전해가는자동차에바치어두다리가 부러지고뇌일혈(腦溢血)로혼도되어잇는데곳부민병원(府民病院)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시켯스나 오전 아홉시이십분에 그만절명되어 버렷다 말도다리를 상햇슴으로 말은 황금정삼정목견묘병원(犬猫病院)으로 이송하려다가치료중이라 한다 가해자인운전수는 본정 경찰서에서불러다가조사중이다

이십이일오후다섯시반에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팔십사번지 압큰길에서 내외(內外)【택시】운전수 전채복(全在福)(二六)이가손님두명을 태워가지고운전해가다 뒤편에서다른질해가는 조일(朝日)【택시】운전수 주상근(朱上根)(二五)이가 운전해가는 자동차에바치어 내외택시는 뒷편바퀴와 류리창을 파손당햇스며승객두명는 조곰상처를 내엇고 가해편조일택시는 압바퀴가조곰상햇다 내외택시는 손해 삼십오원이며 조일택시는 손해 십원가량이라한다

水害地의處女들을 誘引튼惡黨被檢

직업구해준다고 피여다가는 虎口를버서난少女警察에呼訴

이십이일밤열시경에시내종로서에는나히 열사오세 가량되여보이는처녀가 엇던신사에게 인도되여 허둥지둥달려와서 아래와 가튼사정을 애소하엿다

그처녀는 라주읍(羅州邑)천순이(千順伊)(一四)로서일즉이수재에 오집과부모를 일코는장성군황룡면황룡리(長城郡黃龍面黃龍里)바태준(朴泰俊)의 집에 몸을부치고 잇는데 가튼동리에 사는 리필례(李弼禮)(三四)라는 녀자가 눈차저와서는 서울로오면조흔 뉴자리가잇다고하면서꾀임으로 함께상경하야 시내팔판동(八判洞)륙십사번지 백창긔(白昌基)의 집에묵고 잇섯는데 직업을 구해준다든 리필례는뜻박게도 한북ㅅ기(雄基)서 작부사러 왓다는최시현(崔時鉉)(三〇)과 수근거리는것이 밀정 천순이를 그사람에게 파는눈치임으로 이것을 아라차린령리한천순이는 이십이일밤중에변소보 나오는체하고는 저기숙소를버서나서 행인에게 경찰서를 물어가지고 고발해온 것이다 이에 그서에서는 저기팔판동륙십사번지를습격하고 리필례와 최시현을 체포해다가 취조한결과그들은 이박게도 수재지에서 엇절줄모르고 헤매는 부녀사오명을 유인하야팔어먹은일도 자백하엿다

因襲의早婚을悲觀 可惜,女學生飮毒

全州出生의某富豪집貴한딸

今朝,花洞에생긴悲劇

구르가티피여오르는 희망은 붉다지만 무리한강제결혼은 드듸여 그것을여지업시짓밟어노햇다 차라리창바게뿌리는 구즌비소리와함께 죽어버린 리상의시체를 안고참혹한 현실을 죽음으로서써 꼿막으려고한 어린녀자가잇다

▼…이십삼일오전다섯시경에시내화동(花洞)팔십칠번지의이호학생하숙에 머물고잇든 시내모녀학교(중등이상) 일년생김소조(金小姐)(一八)(假名)는【알콜】을만히마시고 자살을계획하엿다 함끼잇든 그동무가그의 고민하는 소리에 놀라깨여서 그광경을 발견하고 곳집안사람들을 깨여가지고 부근의전병원(醫專病院)에 엽원시켜 응급치료를하엿으나 먹은【알콜】의 분량이 너무만엇든까닭에 매우위중하야 십팔세의꼿다운생명은속절업시 병실에서 사라지려고한다

▼…그는 충남강경읍북정(江景邑北町) 수십만장자김모(金某)의딸로서 일즉이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全州女高)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시내모학교에까지 온그는 돈것고재조잇고 얼골조차입분 여자엿건만 무슨까닭으로 꼿가치피여올듯한 그장래를무덤미테 파무드려고햇나?

그는일즉이 삼년전 열여섯살때에 부모들의 강세로남편이무엇인지결혼이 무어인지도 모르는때에가든강경읍내박남천(朴南天)(假名)(당시십오세)과결혼을 하엿다 이러저러 해가가서 그의가슴속에는 참말도 녀자로서의 자각이눈트기 시작하엿슴때에는벌서그의 운명은 암전히결혼에의하야 결정된것을 발견하엿다

▼…원래이그리든동경(東京)류학도 공여되고 시부모와 철모르는 남편과가티 살림을하려고 화햇스나도모지 취미수업서서 마음내키지안는부모에게 간청하야 지난구월에 남편과함께상경하야자기는모회교에 남편도 시내모학교에각각 입학하고 남편은 소격동(昭格洞)구십일번지에잇고 자기는저기회동에 동무와합께잇스면서 꼿부를 시작하엿다 그러나 날이갈스록창밧게 저무러가는 이해와함께 그의희망과 못리상도 다죽어버린것임을 더욱심각하게 느끼지안으면 아니되 그는밀경국도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 계획한것이라 한다

아버지차저十八年에 天涯에서父子가相逢

죽엇다고제사를지나든터에

至誠이報答된定州의朴靑年

【新興】 십팔년전에집을나간 아버지를 차저서 십삼년동안을 하로가티 방방곡곡으로 다니다가『네아버지는죽엇느니라』하는 무당의 말을밋고 객지에서 삼년상을 치른후죽은백골이라도 차저야 겟다는생각으로다시 잇해동안을 클량하다가 이번에는 백골이아니라 백발로인이된 산아비를차젓다는 이야기가잇다 본적을 평북정주군동주면봉명동(定州郡東州面鳳鳴洞)일천이백사십구번지에 두고 현재 함남신흥군동흥동 금광에 종업중인박행봉(朴行鳳)(二八)과 그의아버지친부박지영(朴至永)(五二)로인이다 로인은 거금십팔년전안 정사년(丁巳年)는긴봄 어느날에 당시오십삼세의 포연히그본적지를 떠나버리엇다 그때그아들 행봉은 이십의세의한 청년으로 아버지보다 두살우인 그모친탁씨(卓氏)(五四)를모시고 기우러저 가는가세를만회코저 노력한는한편으로 부친의 소재지를 탐문하엿스나종편에드르면 혹은 함경도갑산(甲山)에 잇다고도하고 혹은평북 어느금광에 잇다고도하야 그 행방은 의연히 조잡을수업섯다 그리하야 그이틀해인 무오년 봄즈음을탐하다옴그는그부친을 차저위선갑산신갈파(新乫坡)에 이르럿스나 그곳에서 그부친을 만나지못하엿슴뿐아니라이것이해봉으로하여곰 이래열일곱해란 장세월사이에 부평의신세가되어 동서에떠돌면서 부친을 찻는실마리가되게할줄은 행봉군 그자신조차 몰랏든것이라한다 이른부터 그는평북의광산을 모조리찻게되엇스니 갑산에서 떠난지일년후에 그는 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館西面造岳洞)에 잇는 천창의(泉昌義)씨 금광에이르렀다

금점으로

생게를니어가면서 체재하기오년간 부친의행방을 아지못한그는 동군천마면 안창동(天摩面安倉洞)에 잇는 서양사람경영의 금광에 자리를 옴기어 삼년이지냇다 그는다시 동군 서산면 립석(西山面立石) 금광에서 일보는몸이되엇다 밤서잠들때나 부친의 소재를탐사하기 무릇십일년이라 시일이걸리어 그곳에체재한자 어떤후에 그는중병에 들니엇다 무당은그에게객사한부친의 귀신의작란이니 이재리도부친의 삼년상을 지르고 해마다제사하여야 나을 것이라』고하엿다 부친의 죽가한날자를 긔억하지못한그는 부친의

생일날인

음력십일월아십이일 아비의죽은날로 정하고 그곳에서 삼년상을지른후 아버지의유해를차저서 초산군남면부평동초산금광(楚山郡南面富坪)(楚山金鑛)과 박해만(朴海萬)금광등두루두도라 작년겨울기함남장진군동하면자진금광(長津郡東下面紫翔金鑛)에이르럿든것이다 자진금광에 체류하엔 약반년후인지난오월이십일에그는아상하게도낫치익은백발의로인이금점법역을추리는것을보고 그에게여러가지말을무러보앗더니그로인이돗바게도자긔의부친인것으로 판명되여 십팔년만에게적으로 상봉된두부자는 전과자진광이 조선광업개발회사에팔림을계회로 며칠전에 아들행봉군은전긔와갓치 명태동 광산에 이르러부친 지영로인은신흥을 총파하야그

본적지로

향하엿다잡구한서일을두고 부친찻는 일념으로자나친행봉군의 뜻은 가상하려나와산아비를 죽엇다고 삼년상을치르고 도래지임망정 해마다제사드리게한 무당의 허탄한 미신은 원종의던썬스라 하야일반의이야기 꺼리가 되어잇다고 한다 (사진은 박행봉군)

川崎變電所에서 朝鮮人五名燒死

工事中에瓦斯爆發로

【川崎電話】 이십이일오후네시에 천기시대천정(川崎市大川町)동경전등회사천천변전소(鶴見變電所)공사장에서 일을하고잇든 백서기조공사청부회사(白石組工事請負會社)인부 조선인 강순영(姜舜榮)(二三) 정윤관(鄭允寬)(二六) 김한관(金漢官)(二六) 과대림조(大林組)의 최영도(崔榮道)(二五)외하명은 칠십척이나되는굴에서『까스』가폭발되어기때문에참혹하니다죽어버렷다원인은땅미테서『메탄까스』가 발생하는것을 알지못하고 담배를 피우고저성냥을그엇기때문이다

檢事局서取調中 强盜犯突然死亡

平壤地方法院檢事局의事故

屍體는即時로解剖

【平壤支局電話】 검사국에를려드러간 강도혐의자가 졸도직사한 괴사건이 이십이일오후 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서발생하엿다 그는평양서성리(平壤西城里)강도 전과이범 김성만(金成萬)(三五)이라는흉은강도로 지난 십일밤여덟시에 한동리에 사는 김태윤(金泰潤)(三三)을유인하야 평양경제리(鏡齊里)윤모(尹某)의집으로데리고가서그자가젓든 현금일원팔십전과옷감두필을강탈하고십오일에평양경찰서에붓잡혀서취조를밧고이십이일에평양검사국으로넘어가서그날오후 두시에 검사정으로 불려드러가서홍(洪)검사의취조를밧게되엇는데그는 어떠케 된일인지검사정에 드러서자마자 그만졸도되어그냥영영절명되어버렷다

그래서 그검사국에서는곧 소동을이르키게 되어의사를 불려가는등 별별수단을 다써보앗스나 마츰내아모효과를보지 못하엿다

이것은 평양검사국이 생긴이후 처음으로 생긴가괴한일인데 일실에는 죽은그혐의자는 평소에 아편중독자라는 말도잇스나 미들수 업는말이매 이십삼일오전에 평양의학전문 학교부속의원에서 해부를 하엿는데그해부결과로 죽은 원인이판명되리라 한다

市內樂園洞에 에로窟發覺

이십이일 밤열시경에 종로서에는 시내 관자동(觀底洞)장성녀와가든 사실을고발하엿다 시내 락원동(樂園洞)이백×십×번지 감서녀(金姓女)(三二)의남편 최모(崔某)라는청년이 조차와서 아래안해를 유인하여다가 자기집에서어떤자에게매음을시키고저조대로상원을밧다서는자가가소개로이원을밧고최모의안해에게팔원음수주고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이에그서에서는 곳전기 락원동 김성녀를 인치하고 취조하엿든나 그는 이방면에선 유명한뚜쟁이로서 그휘하에는 유부녀과부 여급등 수십명으로된『에로』망을가지고 잇스면서 그가중간에서매음을 소개하고는 소개료를 먹고 잇는것이라는데 이『에로』굴의고객으로는 관리회사원등 상당한 인물들도만어서 의외에도경성시내의 일부신사금의 리면생활이 이에로굴의 적발로 백일아래 미운자태를 폭로할자도모른다고한다

十二月廿三日(日曜)

◇同六時 四重奏 一、皇太子殿下誕生祝賀 二、序曲 金色의王位 三、圓舞曲 天使의꿈 四、舞曲 勇壯 京城四重奏團 指揮 李鍾泰

◇同六時二五分 奉祝講演 皇太子殿下滿一年의御成長 朝鮮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壽春不老之曲 二、仕新風流 奚琴 李錫雲 大笒 金一錫 細笛 李炳星 長鼓 金一守

◇同八時 古談 賢母良子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크리스마스노래 一、女聲合唱 별빗츤村落에 二、混聲合唱 西班牙캐롤 三、混聲合唱 牧者들아니러나라 四、混聲合唱 牧者들아드르라 五、混聲二重唱 찬란한榮光(헨지안노엘) 六、混聲合唱 밤中에羊을직힐때(十七世紀聖誕歌) 七、獨唱과混聲合唱 저혈을보라(黑人(米)謠) 八、混聲合唱 露西亞兒童聖歌(白系露人謠) 九、男聲齊唱 聖誕吟誦(시聖안曲) 十、混聲齊唱 이야기가누구냐(英國古謠) 十一、混聲齊唱 거룩한아기잘자라(十三世紀뽀레든노엘) 十二、女聲三重唱 압사시안聖誕歌 미란데編曲 十三、混聲合唱 뻿을네햄(글넷즈民謠) 十四、獨唱과合唱 어엽부구귀한아기예수(헤이스안자장가) 十五、混聲合唱 幸福스런뻿을네헴 十六、獨唱 聖誕자장가(伊太利曲) 十七、混聲合唱 피는月桂花처다보라(푸레토리아스作) 十八、獨唱과合唱 구주나신날노래하자(十七世紀佛蘭西노엘) 十九、齊唱과合唱 即位하신王을致賀함(모래비안頌歌) 二十、合唱 참반가운信徒여다이리오라(포추기스頌歌) 인터내슈낼 코-라스 指揮 英美理 피아노伴奏 우드醫

十二月廿四日(月曜)

◇午後○時五分 南道歌謠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金錦玉 李錦紅 大笒 朴鍾基

◇同二時 家庭講座 크리스마스의由來와節次 崔鳳則

◇同六時 童話크리스마스밤의順吉 秦金星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同七時 講演 今年의回顧(六)過去一年間의景氣의動向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七時三〇分 크리스마스송 樂園練習所로부터中繼— 一、나사렛에나신예수……구노作曲 二、아베마리아……구루치 三、고요한밤 거룩한밤……獨逸民謠 四、아베마리아……슈-벨트作曲 五、聖劇救世主中에서一節 헨델作曲 立演 피아노伴奏金永義

◇同九時 피아노獨奏와獨唱

天氣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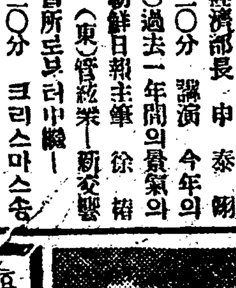
晴一時曇

日本의氣壓配置는 全般的으로不安定하다 日本海南西諸島에는 小低氣壓이處處에잇고 蒙古方面에는 高氣壓이强한氣勢로發達하야 朝鮮方面으로퍼저잇다 이때문에北部는맑고 中部는흐리고,南部는비가오나 漸次로날은개이며,明日은 快晴하고치위가질터이다 氣溫은 釜山七度中江鎭零下九度의 사이에잇다

昨日最高 五度六

今朝最低 一度四

今日正午 三度六



체증과속병엔 겡오ー가제일이오

신약 겡오ー는발견하엿다。그효력의 위대한 증거는 답시하는 감사장이 증명하오니 잘보시고 안심되어 백방으로 치료하여도 잘안되어 곤란하는분은 최후의시험으로 겡오ー를일각이라도빨리쓰시와 인생의최대행복인 건강을 맛보시오 이약은 남녀노소업시 유아간기에 신효하니 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 것이 우리위생상 건강상제일 필요함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오◇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 위괴, 위괴양, 구미업는대, 적, 신경쇠약, 위확장위산과다증, 위하수증, 구식조선말로주체, 담체, 냉체, 식체, 회적등무슨체증이든지단시간에듯습니다 약은 가두약인대 하루에세번, 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 냉수에먹습니다

약갑

완고용(頑固用) 한갑 삼원 / 중증용(重症用) 한갑 이원 / 경증용(輕症用) 한갑 일원

지방송료 선금이면십오전 대인환이면 사십오전 약갑돌표삽십전자리로보내도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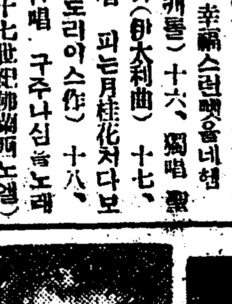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만일 모든약이던지 아삼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병에 알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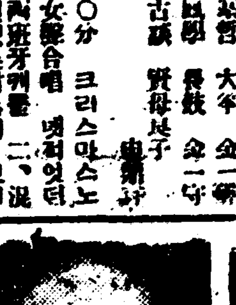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三四番 ·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부종증·폐병·륵막염엔 나오삐ー가제일이오

기침·담·천식엔 엣치삐ー가제일이오



치질엔 엥구루가제일이요

치료를하여도 좀시낫지안는치질이 엥구루(ANKUR)는 ... 【약가】 중증에 이원 경증에 일원 ... (약은 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大正館 本町 — 十二月廿四日より特別大公開 1 珍サーカス 2 居候脫線記 3 仁義一本刀 晝夜三回興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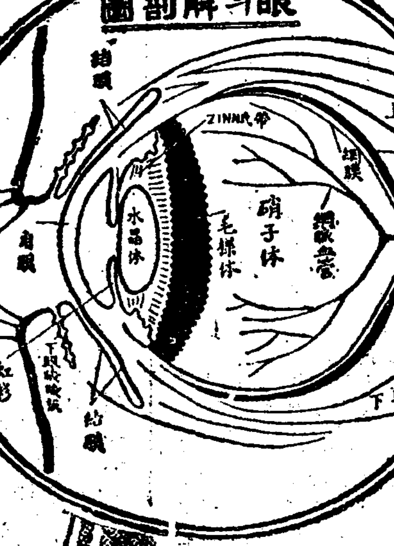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話光一七五五 — 二十一日より特別大公開 名映畵短期上映週間 一、ユニヴァーサル特作 聖林大騷ぎ 二、ユニヴァーサル特作 爆彈パイ 三、ユニヴァーサル特作 ナップル 四、M·G·M超特作日本版 珍軍拳鬪班 △ヘル、ダイバース △ヘル、ビロウ

浪花館 明治町一 電本二七六 — 特望卄一日特別封切(四日間) 大衆料金 階下廿錢均一 新興キネマ本年度提供 阪妻プロ本年度超特級作 原作 吉川英治 監督山口哲平 雲霧閻魔帖大會

中央館 永樂町 — 陽氣な踊子 コロンビア映畵社超特級作

眞正한高級眼科藥 로-도안약

井上獨逸博士處方
中尾藥學博士指導



眞正한眼科藥의特質

眼科疾患의太半은黴菌의傳染、塵埃、有害까스、外傷等에起因된炎症、糜爛等이만코、따라서이治療에쓰는眼藥은、殺菌防腐、收斂、消炎、鎭痛等의諸作用을具備할것은、勿論이나이런作用의綜合効果가强하면强할사록眼藥으로서는優秀한것으로서、또無刺戟性(안쓰리고、안압흔特質)을具備하여잇는것도必要합니다。即眞正한眼科藥은반다시以上의諸條件에合致한것이아니면아니됩니다。

로-도眼藥의性能

로-ト目藥은井上獨逸醫學博士가眼科醫學의純正한立場에서先進各國의點眼藥을比較硏究하야、그것에、折長補短을하고効力第一主義를標榜하야서創製한것으로、大槪眼疾의治療에必要한諸作用은이것을合理的으로保有하고前記의『眞正한眼科藥』으로서의特性을具備하얏슬뿐아니라、中尾藥學博士의指導에依한製藥의嚴正은、로-ト目藥이高級眼科藥으로써價値를더욱더놉히는것입니다。

ROHTO

冬季에흔한眼疾의知識

結膜炎

結膜炎이란것은結膜即眼瞼의속及眼球를덥고잇는眼膜에일어나는炎症으로서、世俗에流行眼疾、눈곱끼는病진물은눈病、上熱眼疾等이라말한ㅅ입니다。原因은K·W氏菌等의黴菌、塵埃、强烈한光澤等으로그症狀이輕할때는結膜의充血、眼脂의分泌、眼瞼의腫脹等이되나重하게되면、充血과부은것이甚한때에는쑤시는것갓튼痛症이잇고、또밝은光線에對하야서는눈이부셔서눈을못뜨게됩니다。이結膜炎의療法으로서는、每朝洗面時淸冷水로잘씻고、眼脂等不潔한것을딱근後에로-ト目藥을一日、二三回點眼할것이有効합니다。로-ト目藥은그殺菌作用으로 病原菌을죽이고消炎作用에依한炎症을消散케하며、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充血과부증을빠지게하고止痛의機能이綜合的으로有効한作用을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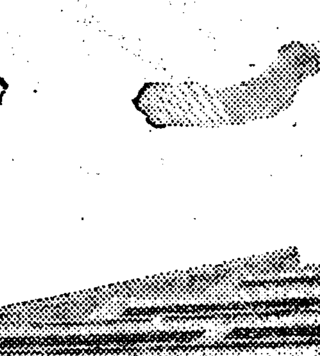
角膜炎

角膜炎은世俗에삼눈바람눈、진무른눈等이라말하는眼球의검은部分에일어나는眼疾입니다。原因은草藥、樹枝에닷첫슬때、或은結膜炎이續發된境遇에검은창이호리고、빽태가나서눈이처친하야、잘안뵈이고、或은甚하눈물이나시눈까에糜爛부임으키는일이잇습니다。療法은、大體結膜의項에서말한바를實行하면조코로-ト目藥의優秀한消炎作用은角膜의炎症에對하야서、極히有効히作用하고그收斂作用과相俟하야서眼垢를除去、糜爛을治療、炎症의減退에따라서流淚는적게되고鎭痛의作用으로그疼痛는업서지는것입니다。

眼精疲勞

世俗에 회눈병이라말한것으로 이것는 長時間緻密한일이나、記帳、裁縫、讀書等을계속한것이原因으로視神經及眼部筋肉의疲勞로일어나는疾患인바近代人特히都會에사는분들의게罹病率이만흔것입니다。病狀은눈이疲勞키쉽고일에倦怠를늣기며判斷力과記憶力의減退까지일으키게됩니다。이런症狀을自覺할境遇에는放任치말고、로-ト目藥과갓흔健眼의効果가잇는眞正한眼科藥을一日數回點眼하야서눈에榮養을주고愛護하는것을게을이하여서는안됩니다。

新案特許 自動點眼容器



下部의캡푸(네지뚜거)를빼기고、甁우의고무뚜껑을누르면目藥은一滴式나옵니다。藥이조금도허실안되고、便利、衛生、經濟等을兼한最新式點眼容器입니다。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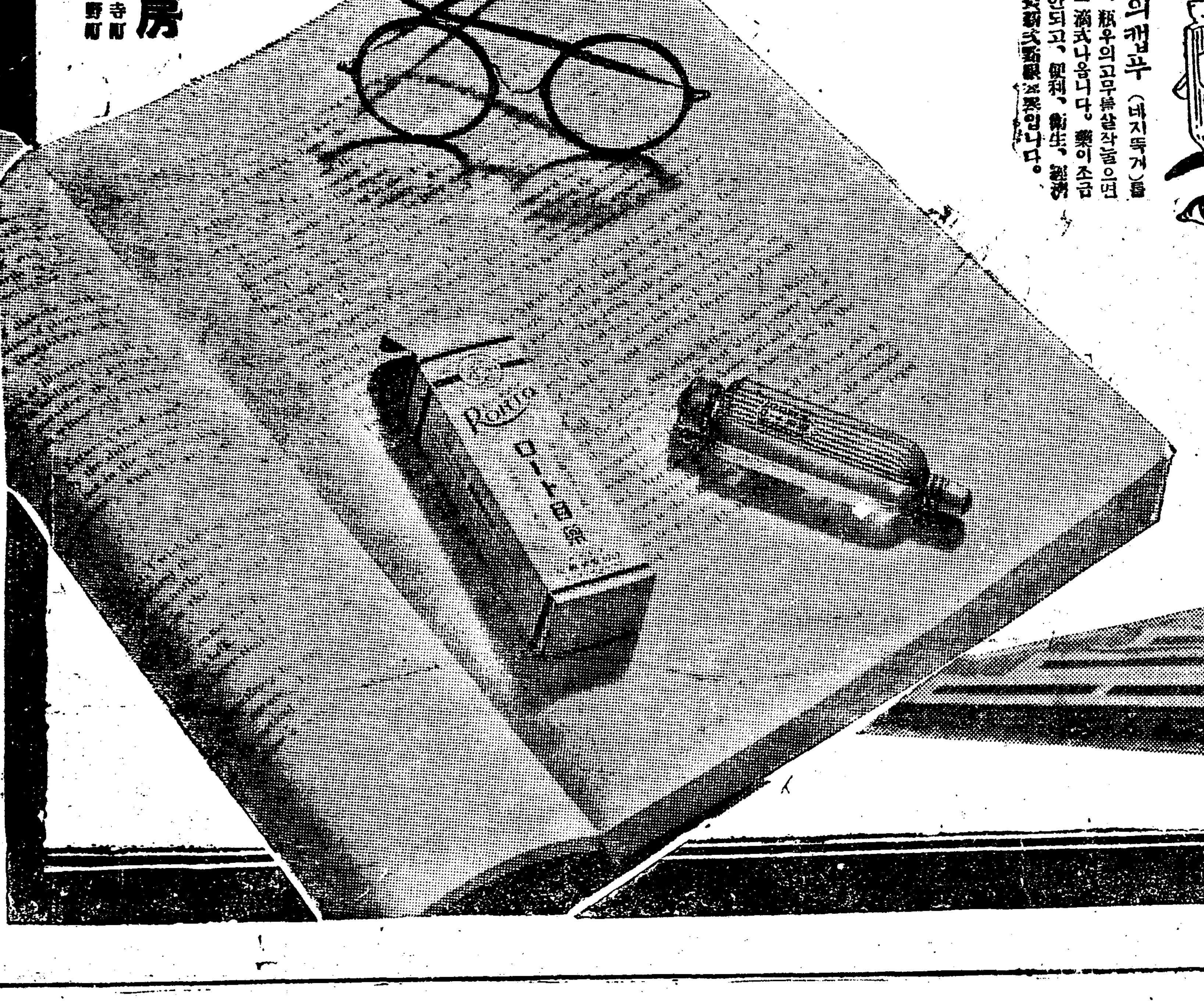
結膜炎・結膜充血
疲勞眼・學校眼炎
角膜炎・眼瞼緣炎
角膜翳・도라호무
麥粒腫・淚囊炎等

(俗稱) 회눈、流行眼、上熱眼疾、진물은눈、눈곱끼는病、번적번적한눈、설눈、부신눈병、눈다래끼、바람눈、삼눈호린눈、부은눈、뻑뻑한눈、

小兒의眼疾에對하야

乳兒나小兒의 눈組織은特히銳敏하고、또弱한것임으로、子女들의게쓰는目藥은 特히注意하야서는것이必要합니다。그런意味에잇서子女들의 眼疾에는꼭小兒專門의「小兒用로-ト目藥」의點眼을推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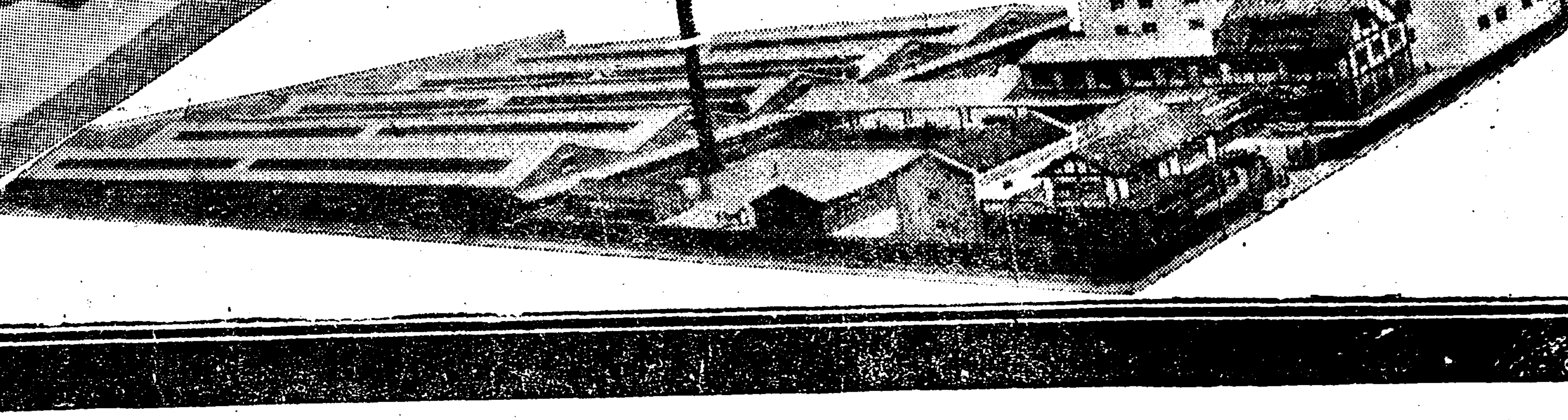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



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生産合理化의結果 藥價低廉

小函	二十錢
大函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蒼天斷罪是何甚" 泣願、火急之救助

살길이라차젓드니餘命채쭉한나는 密陽移民의斷腸할歎願

【密陽】 미증유의 수재로 일조일석에 살길을 일허버린밀양 리재민들은 그후당국의 주선으로 각곳으로 의주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전긔리재 의주민들은 행여나 살길이라고 차저갓든곳이 뜻밧게도 살길은 커녕 오히려 저주밧는그들의여 명을 재촉할뿐이라고하야 다시 한번차저들어 부모 형제나보고 죽겟다고귀향하는자가잇스며살 길이라고차저갓든외지에서보기 실흔죽엄이되여창소한고로도도 라오비참을극한일도잇스며그중 에는도망질도못하야사경에빠저 스니 려비를보내며 당국에교섭 하여 사람살려달라는 기맥히는 편지가 그들의친척에게 비빨가 치온다는바 지난십구일에는 당 국의지도로 함북계림탄광(雞林炭鑛)에출가하엿든 밀양하남면 (密陽下南面)출가민일동으로그 향인하남면장리후택(李厚宅)씨 에게 우리의압해는 죽엄이잇슬 따름이니 살리여내어달라는 혈 루정첩한진정서가왓다는데그내 용은다음과갓다

陳情書全文

死地에빠진 民等은頓首伏白하옵니다 噫다黃天이我蒼生을棄하심이 何如是甚且大也잇고昨今兩年의 水害가안이오면今日의此境에야 至하얏사오릿가。山野高低를勿論하고 襲來하는洪水에 住宅衣服汁器와 農作物其他生命을 維持할機關을全部 빼앗기고 十生九死의生命은官憲의熱烈하온應急救濟와各種社會團體及 慈善家의同情을 [illegible]하와 殘命을 保存하옵든 實로感謝無地오며水害後로부터 오날에至하도록[illegible]하신官憲의 苦心講究로써各種의 新規事業이有하얏스나 多數한罹災民은 活路를엇지못하고死線에서彷徨하압다가 總督府에서水害罹災民에限하야 炭鑛人夫를募集한다 함에 炭鑛이라하는곳은危險도 할뿐人夫를 無理로取扱한다는 것은 모른배안이오나 官은民의父母다十分安心하고 賃金과 食代와 作業을드름에活路를다 시어든듯하여낫익은故鄕山川과 흠으신 父母와妻子를 離別하고 山川人物모다설은이 곳으로 金錢에몸이팔리여實地에 到着하야보니 募集當時듯든條件과는 十個이 相違되오니 可謂人質을 當한 民等은 當局의 善處만 苦待할뿐이오나 주린배웅켜쥐고朝鮮난바 라보고잇는 故鄕家族는어찌不鮮치안타하오리까 募集時罹身者家族에게 救濟策으로金十三圓十錢을 支給한다하옵드니아 즉도支給이 無하다하오니何故이오릿가 或者의말을듯사오니 逃走者가잇다 理由라하오니 逃走者에는 支給치안이할지라도 現在者家族에는 一日이라도速히支給하시와 死境에在한家族으로 慘酷之變이업게하야주옵소서 本炭鑛形便은坑內가危險하야每日輕重傷者가朝鮮人에限하야만 七八人式되옵다가下南面貴明洞金相鎭은本月一日午後八時二十分坑內에서 [illegible]하얏사오니 어찌慘酷치안이하오니 [illegible] 如此한慘狀[illegible] 안것습니까 [illegible]에가는 소모양으로 다시그굴에 死生關白身의[illegible] 를뉘하야드려가게됩니다 伏望閣下께서 明察하옵소서。城主는無法天地라 萬一此陳情이 實施안다면 더구나雪上加霜의 苦楚를當할것이오니 照亮하시옵소서。會寧警察署에서도[illegible] 鮮人을爲하야 [illegible]힘을썻스나 何等의効果는업습니다。現在密陽人으로 坑內에서 負傷을當하와治療中에잇는者九人이요[illegible] 死者一人이오니解凍期까지가十年이在前인듯하오이다 適當한處分을하여주시옵기望하와玆에 連名陳情하옵나이다

昭和九年十二月九日

咸北雞林炭鑛[illegible]者陳情人 原籍地密陽郡

道內各郡守에게 作權移動防止嚴命

平南道當局에서

【平壤】 소작쟁의가업는지방 이라는 칭호를듯는 평안남도에 서도농지령 시행이후 지주나소작인등이 공연히미묘한 관심을 가지고 긴장미를 띄우고잇는상 태이므로 농지령의 철저를위하 여도당국에서는 구력 정월전후 에는때맛츰 소작료를 증수하는 긔간인만큼 자연히 여러가지의 물론이 생기기쉬운 때이어서이 긔회를 리용하여 악덕지주가 소작권의 무리이동을 함우려 가 업지안흔터이므로 봄법행 위를 엄중방지키도 하라는중요 통첩을 관내각군수에게 발하엿 다한다

下水[illegible]郡 [illegible]印 / 同 巴[illegible]郡 林大[illegible]印 / 同 [illegible]郡 [illegible]印 / 同 巴[illegible]郡 閔[illegible]仁印 / 同 大[illegible]郡 金[illegible]化印 / 同 金[illegible]印 / 同 金[illegible]印 / 同 [illegible]郡 [illegible]印 / 同 大[illegible]郡 尹[illegible]印 / 同 尹他[illegible]印 / 同 巴[illegible]郡 [illegible]印

同 [illegible]印 / 同 大[illegible]郡 [illegible]印 / 同 金[illegible]印 / 同 朱[illegible]印 / 同 金[illegible]印 / 同 巴[illegible]郡 金[illegible]印 / 同 閔[illegible]印 / 同 [illegible]印 / 同 李[illegible]印 / 同 [illegible]郡 金[illegible]印 以上

教員思想不穩타고 懿成校에廢鎖令

十四年의歷史는이로써終末? 百餘兒童街頭에彷徨

【海州】 해주군내성면팔학리 (來城面八鶴里)에잇는사립의성 학원(懿成學院)은지금으로부터 십사년전인 대정십일년에 동면 유지박연효(朴淵孝)(四三)씨가창 설하야 이래십사년간 년령초과 된 무산아동의 유일한교육긔관 으로서 근일까지 농촌의문맹퇴 치운동에 전력을다하야 오든바 지난십칠일 당국으로부터 돌연 폐쇄명령을 내리여 학생일백이 십여명은 졸지에 배움의길을일 코 가로에방황하고잇다한다 학원은과거십사년간부인가제로 당국의 묵인밋헤 오늘까지존속 하고잇든터인데 동학원의 창설 자요따라서 현재동학원 책임자 인 박연효(朴淵孝)씨가 소와록 년에 자긔가가라치는 강습소아 동에게 불온사상을 고취햇다는 사실로 인하야 보안법위반 (保安法違反) 사건으로 금고 일개 년의 처형을 바든바 잇서 교원의 사상이 불온하다는것이라 는바 십사년이란 역사잇는학원 을 졸지에 폐쇄명령을내린다는 것은 그심사를 알수업다고면민 들은 대책을강구중이라고 한다

囹圄에서過歲할 少年刑四六百餘

犯罪가그社會의實情을反證한다면 少年朝鮮은어대로가나?

【金泉】 최근의조선은설명은 말할것도 업지만 미성년인소년 범죄자 역시해를따라 격증하고 잇다하니 이것이 무엇을말하며 얼마나 한심한일이까? 이제 압 호로 이해도 얼마남지안엇스니 그들의 변령으로부터 깃뿌다고 년 형무소의 통계를밀어보면총 수형자 륙백사십륙인이란 놀라 운 수자로 수형자의범죄별로본 다면 다음과가티 절도가제일을 차지하고잇다고한다

▼窃盜四五八 强盜五九 傷害一三 殺人一二 放火一三 姦通重婚一二 其他七八

例年보다도 小作料를增收

地主에게怨聲藉藉

【忠州】 충주군엄정면모지주 (嚴政面某地主)는이전에는소작 인오십인에대하야소작료한이백 석을 증수하엿다는데 금년에는 동면에여섯을증수함으로소작인 들이 당지군청에 소작쟁의서를 작성하야 제출하엿다한다 쟁의 의내용은 금년수확은 조랭(早冷)풍재(風災)등으로 이할내지 삼할이 감수되엿슴에도 불구하 고 오이려증수한다 함이라 한다

平原郡下에 小◇火◇兩◇件

【石岩】 지난십오일미명오전 륙시경에 평원군동암면산옹리 (平原郡東岩面山翁里) 리룡환 (李龍煥)의집과 그것집인 석영 후(石永侯)의집사이에서발화하 여 작우장을반소하고 산옹소방 조원의 맹활동으로 약사십분 만에 진화되엿는데 [illegible] 은미상이며손해는약오십원에달 한다고한다 [illegible]

延白署에서 歲末警戒開始

【延安】 황해도연백경찰서에 서는 지난십팔일 오후륙시부터 구시까지 경찰서원이 총출동하 야 부랑자급걸인등을 일제히취 체하는동시에 무직자에 한하여 서는 직업을속히선택하도록 엄

全人口三分의一

文川郡의細窮民

【元山】 설한풍이살을에우는 듯한 이엄한에 괴아선상에서방 황하는 세궁민이 문천군하에는 얼마나되는가? 지난 십일월일 일현재로 문천군청에서 조사한 수자에의하면 세민(細民)이 일 천오백오십일호에 팔천륙백구 십오인이 고 궁민(窮民)이 칠백 오십이호에 사천백칠명으로 세 궁민합계가 이천삼백삼호에 일 만이천삼백이인의 다수에 달한 다 이것을 문천군전인구삼만칠 천사백이십사인에 비하면 실로 삼분지일에 해당하는 참상인바 이것을 각면별로보면 다음과갓 다고한다

面別	細民戶	細民數	窮民戶	窮民數	以上戶數	以上人口
郡內面	三五	一八六	一八	四五	[illegible]	一六八一
明孝面	[illegible]	八七	九	三一	一五四	一〇三
龜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都草面	一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雲林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五五一	八六九五	七五二	四一〇七	二三〇三	一二八〇二

이상과가티 세궁민총수는 전 문천인구의 삼십오파센트에 달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세궁민이 만흔면이 운림면인바 이운림면 은 사면으로오륙백간 계속한홍 작으로 발서륜동시작으로 대다 간차지만라고한다

肥料王多木、群山에 燐酸工場을設置

朝窒肥料를對抗하야

【群山】 군산은오래전부터대 재벌의 공장(工場) 건설유처에 전력을다하야오든바 근일 확문 하바에의하면 전북의산군(益山 郡)에다대농장(農場)을 가진고 잇는다목구차랑(多木粂次郞)씨 가 조질(朝窒) 비료의 독보적 판매망(販賣網)을 대항하야 군 산에다 린산(燐酸)공장을 설치 하기로 하얏다는바 동공장이설 치만되다면 조선내의 비료계는 단연리―드하리라고 한다。

公開禁止코開催된 三面地主大會

記者의入場까지拒絶

【通川】 통천군에서는지난이 십이일오전십일시부터 통천 벽 양、림남(通川、碧養、臨南)삼 면지주를 모아노코 간담회를개 최하엿다는데 일반에게 공개를 엄금하는동시에 심지어 신문긔 자까지입장을거절하엿다는바그 리류는 지주회합인만큼 세상에 발표치못할 비밀과 농지령에대 하야서 지주에게 훈시하겟는데 역시 비밀이 잇다는것으로일반 에게 더저준 의혹은자못크리라 한다

百濟橋改修陳情

【扶餘】 충남부여군부여면과 규암면을 경계로금강나루는 왕 래가 빈번하데 몃개의나루배로 교통을하게되여 교통상 불편이 막대하야 유지의활동으로 공비 사오천여원으로 소동지규암이에 백제교(百濟橋)를 가설 하엿든바 원의대홍수로 전긔다리는 류 실되엿는데 관계니은 재해지로 도저히 가교할힘이업다하야 과 계량면장과 유지일동은 지난십 오일에 충남도지사를 방문하고 동교 개수관리를 진정하엿다한 다

正直한職工

【西宮】 본 적을경상남도 합천군삼가면어 전리(三嘉面於田里)에두고현재 병고현서궁시동정일정목산촌세 당공장 (兵庫縣西宮市東町一丁目山村製錠工場)에 직공으로근 무하는 홍상성 (洪祥聖)(二三)은 지난십이월륙일 오후여섯시경 에동시금진정을통행하다가시가 삼백여원되는 비다못다리 한개 가길에 떠러저잇는것을 습득하 야경찰서에 계출하려가다가 유 실한 주인을 마침맛나서돌려주 반환하얏는데 유실한 사람는감 사함을 마지아니하며 그시실을 드른 공장주 산촌(山村)씨는정 직함을 귀특히 생각하고모범직 공아라고 금일봉으로 표상하얏 다한다

刑事라고假稱 自轉車를詐取

【陰城】 지난이십일일밤에충 북음성군 원남면삼봉리(陰城郡 遠南面三鳳里)지창근 (池昌根) 방에 아지못할 청년이나타나서 자긔는 인군진천(鎭川) 서에근 무하는 형사인데 방금범인이근 방에 잠입하엿스니 자전거를잠 간빌려라 함으로 빌려주엇든바

某富豪를싸고도는 大詐欺賭博事件

主謀者가三千圓을詐取逃走 金泉署各地手配嚴探

【金泉】 각읽각으로박두하는 세모를 압두고몰정이 소연한작 금무지한 산촌의부호의 황금을 락그라고 암옹할약하든 큰사긔 도박단을 금지한사실이잇다 그 자세한 내용을소개하면 경북달 서군현풍(慶北達城郡玄風)출생 의 김달수 (金達守假名)란자는 산촌에서 소위양반행세를 하면 서 상주군공성면 (尙州郡功城 面) 부호 성모(成某)와 공모하 야 경북안동읍 백만부호 최모 (崔某)를끄여서김천(金泉)으로 다리고 와서김천읍내 모수정을 근거지로 정하야 가지고지난십 구일 오후여덜시경에 전긔주점 에안동부호와 공모자 정모와그 외 한사람도합네사람 이한자리 에 모여서김정 (金、鄭)두사람 은 각기삼천원이라는 현금을가 방속에든채로 안동부호 최모에 게보인후도박을하자고약속한후 그의일인 이십일 오후칠시경에 전긔주점에서 부호최모를 제외 한세사람이 모여서 주점사람의 출입을 엄중경게하고 밀담을게 속하다가 정보에게 가방을막겨 노코전긔 김달수는 주점을나간 지약이십분간에 도드와서 정모 에게말하되 안동누호가 모처에

非常警戒第一日에 强盜出現現金强奪

殺風景한歲末一面相

【兼二浦】 세말을당한겸이포 경찰서도 례년에의하야 지난이 십이일부터 서원을 일제독원시 켜 세말비상경계를 시작하엿는 데비상경계 제일일인 이십이일 겸이포경찰서 관내에는 시국을 표박하는 강도가출현하야 인심 은극도의 공구속에빠저 살풍경 한세밀풍경을여지업시나타내고 잇다 지난이십이일 오전한시반 경황주군 구성면룡두리(黃州郡 九聖面龍頭里)김하강 (金河綱) 의집에주인이 출타한 틈을타서 복면한 강도일명이 침입하야전 긔김의처김유옥(金玉玉=三四) 을협박하야현금십륙원과기다물 품을 강탈하야가지고 도주하엿 는데 이급보를 바든겸이포에서 는 바야흐로 비상경계축발일이 엿든만큼범인체포에 최선을 다 할것으로지금 엄중히 수사중 이라한다

慈城大童經會

【慈城】 지난십사일부터장로 교 자성군내칠교파 교도사백여 명이 자성교회당에 집합하야대 사경회를 개최하엿다는데 지도 자는 목사김부열、리준상、전도 사정창순、牧師申[illegible]씨라하며 회긔 는이십일일까지일간이라한다

怪氣候關係? 流行病이熾烈

【通川】 금년겨울은례년과달 러서 이때까지 치위를모르고지 내리만침 온화한 긔후관계인지 류행성감긔 (感氣)로 신고하는 사람이적지안타고한다

地方人事

▲孔達允君(本報[illegible]學支局記者) 閔貞淑孃과의 結婚式을十二月二十四日 午前十一時信川天主教聖堂에서擧行

▲大邱 好氏(倭館幹長)赴任人事次去二十日本社倭館支局來訪

▲廣琪燮氏(倭館補)新興警察署在勤人事次去十六日本報新興支局來訪

國境雜信

◇……내변군(來邊郡)이 풍(與一龍)이라는오십칠세된홀 우이는먹을것이업서서지난십일 일새벽이웃김득호(金得浩)의집 창고에 들어가 공한말을도적하 야가지고 나오다가 주인에게를 키어 활동사진그대로의 활극을 연출한후 드듸어공한말을 미처 도못하고 강도죄로 경찰에붓들 럿다 목구멍이 포도청

◇……금월 일일부터 이십일 까지 신의주지방법원에 도래온 지불명령신청장이 팔십구건 변 말이 더가까우면 더만허질터이 지만은 올려년말에는 도업마나

◇……평북운산군(雲山郡)내 에는팔천명의눈멍이잇는데동군 에서는 이를퇴치키위하야 제일 착수로 군내 입백사십사개소에 야학을 설시하고 칠세이상、사 십세이하의 문맹자 이천이백명 을 수용교수한다는데 동군내에 는 도처에밤과다 글소래가랑랑 하다고

◇……그후안 연귀가 다시온 반하야 압록강은 다시풀려원더 니스폰츠게에 적지안흔 실망을 주더니 이즈음엽귀는 다시치위 가 나날혀 륙도구(六道溝)의스켓트 링은 이십오일 개장식을거행 한다고 원리스폰츠의 유약할시 긔!

今年度經濟日誌

(九月中)

▲九月中

一日 ▲南鮮水害에依한浸水田租는 十二萬石餘에達하야 이補償問題는 當時問題化하얏스나 金融組合方面에서는 이應急善處를希望하고잇고、浸水田租貯藏者는 時價補償을要望이有力化하얏다

▲專賣局調査 八月二十日現在採鹽高는 合計一億二千三百二十四萬七千斤

四日 ▲第二期港灣修築事業은 總額一千四百七十萬圓으로써 十年度부터 施行키로決定하고 第一次着手는合計百七十萬圓으로 仁川第二독크、麗水及釜山의 防波堤、淸津과의四地에施行키로決定

五日 ▲地方物產의販賣斡旋、販路擴張宣傳紹介並產業組合擴充、工業의助成獎勵一般商工에關한事務協議의 各道商品陳列所長及道產業課長會開催

七日 ▲京圖線開通에 伴하야朝鮮滿洲貿易의 新輸送系統인圖們線經由의 物資輸送의激增에應코저 今秋부터北鮮經由京元、咸鏡線輸送에急行貨物列車를運行하야 現行보다 十六時間의大短縮을圖하기로되엇다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八月末現在의 契約總數는五十九萬九千五百十件、保險金額一億千二十九萬餘圓에 達하얏다

十一日 ▲八年度朝鮮米의長期[illegible]

諸貯藏正租三百萬石은九月十五日의 第四回解除八十六萬石으로 全部解除을完了케되엿는데 從來의正租放賣慣習及金融化에 大効果를齎來하야 初回부터 四回를 通하야正租價格의 平均三割高에依하야 概算六百萬圓乃至七百萬圓에갓가운貯藏差益을내엇다

▲專賣局의 今年度의紅蔘拂下는 三井物產과의間에無蔘及尾蔘을合하야 約三萬八千斤의契約이成立되엿다 그런데價格는昨年과同價 數量은多少의增加라고

▲朝鮮水利事業調査委員會는水利事業發達을圖키爲하야全朝鮮的機關으로 水利協會設立의實現을決議

十四日 ▲帝國農會는來年度부터京城、釜山二個所에斡旋所를新設하게되여 朝鮮農會도來年度에는 日本內地進出을企畫中

十五日 ▲第六回京城商品見本市는 大盛況裡에終了

▲水利組合整理에伴한水組의償債還期限은 五十年가량의長期로延期될模樣

十六日 ▲朝鮮信託의土地信託會社買收는 드듸여今日實行하얏다 朝鮮內信託會社는이의二社로되엿다

十八日 ▲南朝鮮고무工業統制에依하야 釜山의南朝鮮信託는 三井系背景으로 着着進行하고잇든바 十五工場의資本合同이되어 三和護謨工業

廿一日 ▲總督府에서는 北朝鮮의 新築事業의 [illegible]

廿六日 ▲新興工業의朝鮮內二[illegible] 秦商會에서는 原料인大豆을 八年度부터 京義 忠北 南北 成北의各地에서 試作中이든바 今年度부터 [illegible]을加하기로되엇다

▲廿一日의 [illegible] [illegible]朝鮮對[illegible]貿易은 [illegible] 로되어 必需品만이[illegible] [illegible]

廿七日 ▲[illegible]地方의[illegible]로 米作의被害는[illegible]以上의[illegible]

廿八日 ▲農林局發表[illegible]九月十日現在棉花收穫[illegible]高는陸地棉一億二千七百三十七萬餘斤 在來棉[illegible]斤

計一億六千八百二十萬斤으로 前年의實收高에比하면 陸地棉은二割一分九厘의增、在來棉은九分九厘의減이다

▲京城石炭商組合에서는 [illegible]及朝鮮炭의石炭[illegible]

廿九日 ▲[illegible]局에서는 當日實施하얏다

卅日 ▲朝鮮[illegible]

小作調停實話

實際로發生된 小作爭議批判

平北의山間部는爭議가업서

新義州支局 活海生

地主側主張

법원과소작인의원 회와또소작인들을 에대한지주측의 주장을종합하면 一、도지권이란 것은등긔를하 지안흔것임으 로매매와동시 에소멸된다 一、터욱이이로 지료매수할때 에도지권에관한문제는 구지 주인 고용서가 책임을지기로

계약을하얏다(매매계약서첨 부)그럼으로나(지주)는 도지권 을 인정할수업다 一、소작인은전부변경하겟다그 리유는 이땅의원데 매평에팔 합(合)내지칠합의수확이잇슬 것인데 현재의소작들은 매평 오합식밧게는 수확을주지 안켓다함으로 이를전부변경 하고나 (지주)의 친척에게소 작을맛기면 수확이 터만흘터 인까닭이다

이외가 터지주는 도지권 을인정치 안흠은물론 소작권까 지를전부때이겟다고 강경히 주 장하며 각소작인에게 소작해제 의통지를발송하얏다

賭地權者의主張

지주는 「도지권이 잇스면 그것은구 지주에게 말할것이오 나에 게말할것이안이다 나는단지 나의소유권을 행사할뿐이다」 라고 강경히거절하얏다 그러나 모작인들은 「도지권이라는것은 이토지에 소속된것이즉 도지권에 대한 해석이 잇슬때까지 우리는이 토지를 내여노흘수가업다」 라고여시강경히주장하야이 소작해제의 통지를바든 소작인 들은지주김영긔 (金永基=黃信 愛의夫)를방문하고 「이도지에는 도지권이 잇는 터인데 엇지하야 그와가튼 통지를 발송하얏느냐」 한즉

도지에 도지권이 잇다는 것을증명하기위하야약백년전부 터의 구문서까지를 들주어내게 되얏다 그구문서에 의하면 「이토지는 원래 린산진(麟山 鎭)의 세전(稅田=鎭有地)인 데거금칠십사년전진졸 (鎭卒) 김복돌(金福突)에게처음으로 도지를맛기엇든것이다、그구 문서는다음과갓다

道光十五年乙未十二月五日 本鎭卒金福突 許明文 右明文事段本鎭稅田在於義州郡古城面新島里西南邊員字 田四日耕 草坂十五日耕 四標段東 本鎭稅田 南小浦 西沙 北溝 [illegible]

四標分明處如左以許立賭地永 永許給事麟山鎭僉使(手決)」

그다음 에는咸豐元年辛 亥十二月十六日 金福突이가 林 仁順에게錢文肆拾兩에永遠放 賣한다는것과同治二年癸亥十 二月初九日 林性厭에게 五十 兩에 光武七年癸卯六月初四日 錢文一千兩에 崔弼奎에게 放賣 한다는등이잇고 대정소회년간 에 피고들의조부인으로부터삼백원 까지총합이천원의돈을주고그도 지권을삿다는증서를제출하얏다

調停의實際

법리(法理)와또한실제로보아현 지주의주장은 당연하지만은 도 지권이란 것이관습에의하야 엄 연히잇고 또그소작인들이 이관 습에의하야 매매한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해소(解消)하여권 모대상(代償)이업시할수는업는 일이다 그리하야 소작위원회 는 처음에구지주인 고용서에게 도지권해소에대한 대상금을 판 부하기로하야 그의[illegible]바 이것에 [illegible] 소작위원회 에서 [illegible] 지주소작인 의 [illegible]문제 [illegible] 결되얏는데 신지주는 십이월륙 일이지난 금일까지 아직도그돈 을 [illegible]

칠백원으가저오지안헛다 그는 축케하려하얏다 그는 김영긔와 의 매매계약에도명문이 잇는까 닭이엇다 그러나 고용서 (구지 주)도 「소유권을 이용하여주엇스면 고만이오 그남어지일은 신지 주의일이라」고 이를거절할뿐 안이라고용서는 실제에잇서 이 대상금 을 판출할능력이 업스며 또그후 행방불명이되고 말엇다 그리하야 약오개월동안 을 로심한결과 「선지주는도지권자에게 금칠 백원을 지출하고 도지권을해 소함

소작은 현도지권자에게 계속 식힌」 이라는조건으로 금년칠월 이 오일에 각각서약서를밧고 도지 권의대상금칠백원은 금년십이 월 륙일까지 소작위원회에 납 부하기로한후 소송을 취하하 얏다이로써 이도지권 문제는해

賭地權의問題

이야기하든곳터도지권이란것이 장차엇지되겟는가?하는문제를 잔간첨부하야이야기하고저한다 도지권이란것은 우에말한것과 가티 영소작권적성질(永小作權的 性質)을 가진것인데 관습그대 로를인정하기에는현대의소유권 관렴과충돌이 되지안흘수업다 즉 민법에의한 영소작권이라도 긔한이 잇는것인데 이것은무긔 한이오 상속과 매매를임의로환 수잇다 즉 그당해토지의사용권 을 소유권자이외의 토지권자가 임의처분할수 잇슴으로 현대소 유권의 관렴과 충돌되기쉬운점 이만코 또통편한점이만흐며 소 작인이 도지권을 가지게되면소 작지에대한해례한마음이생기가 쉽다 그리하야 농사독려의암을 가진당국에서는 이를업시 하려 는방침이다

당국에 이와가튼 방침이 잇는이상 도지권이란것이장 차정리되고 말것은 정한일이 나 현재도지권을 가지고잇게 된상황을조사하야보면대개다음 과가튼 내용이잇다

一、지주가토지를살때에 돈이 부족하야 그토지대금의일부 를소작인으로하야곰 지불케 하고 그대상으로 도지권을 허여하여준것

一、전래하여오는 도지권을산 것(그대금은대개 토지가격 의삼분지일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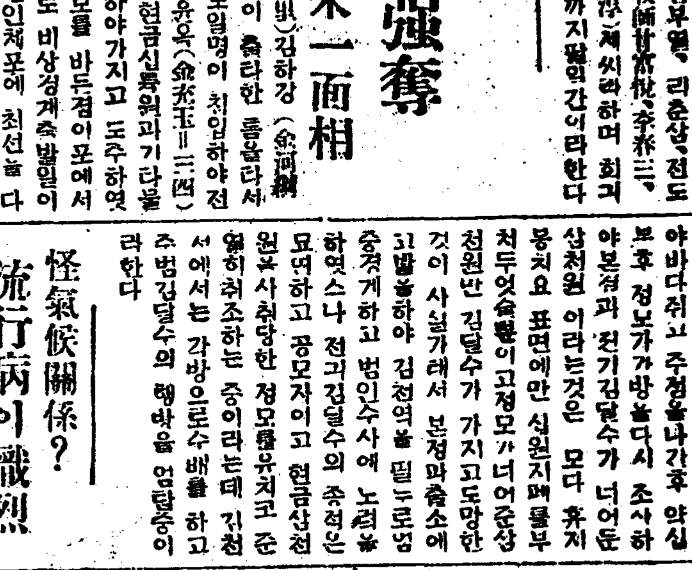
一、황무지를개간케하고 그대 상으로도지권을허락하여준것

등이잇 는데 이것은 도 저히무시할수업는 일이며 장차 도지권을 정리하야 해소하려할 예는 이대상을주지안코는 할수 업슬것이다 그러나그대상을엇 재의 상황대로 토지총가격의삼 분지일가량을 다내여줄수는 업 는일인즉 도지권자와 지주는크 게연구 할문제이다

火賊林巨正

洪碧初 作 安碩柱 畵

(56)



청석골

[illegible] 잇는사람구 마지 끄내오려 니와 그놈의 동정을 살살 떠보게 그놈이 만일 어데 루가거든 뒤를밟버서 가는 데를 똑똑이 알도록하게」 하고 말을 일른뒤에 「밤서 저고 나오네요―」 하고 누가 소리하야 차지 와 여러사람이 다가치 과부 의 집으로 머리를 돌리엇나 꺽정이와 순이할머니가 과부 모녀를 치마쓰이어 앞세우고 집아페 나서는것을 차지가 바 라보고 「저놈이 기집아이 모녀를 다데리구 나오지안나 어듸 로 끌려안치려구걸세 여보 게 모두 항나무뒤에 가서 것을 가는뒤를 밟버보세」 하고 여러사람의 아플서서 향나무뒤로 올려갓다 꺽정이가 세사람을 다리고 우물여플 지나서 얼마가다가 멋사람이 솔금솔금 뒤밟아오 는것을알고 순이할머니더러 색 씨모녀를 다리고 먼저 남소 군안으로 가라고 닐르고 자 기는 뒤처시서 우물께도 걸 어와다 뒤밟하오든사람들이 금 한걸음으로 향나무뒤에 가서 그곳에 아저는사람들을 분수 히 못들어닐으키는데 꺽정이 가 바라보고 「이놈들 어듸두 내빼려구하 면 한놈 낙기지안쿠 모주 리 목와지를 빼둘어놓테니 거긔서 꿈쩍들말아」 하고 큰소리를 질르며 쫏 차와서 우물아페 떡 버티고 섯다 「내자 너놈들에게 손대지안 는것이 큰덕택인줄 몰으구 면 엇절테나 괘씸하놈들가 트니 이놈들 저집에 가서 방속에 가만이 들어안저잇 거라 그래야 목숨들 보 전할테니」 꺽정이가 호령질을 룻동히 하는데 향나무뒤에잇는 여러 사람은 꿈쩍소리도못하얏다 「이리들 나려오너라」 「얼른들 못나려오겟느냐」 꺽정이가 여러사람을 불러 나려서 도야지때 몰듯 몰고 빈집에 와서 방안에 몰아너 코 들마루에 치일때 중하게 다처서 운신못하는사람 둘까 지 마저 방안에 끌어너흔뒤 에 들마루를 들어다가 방문 아페 노코 터 걸터안젓다

[illegible] 갓섯다 얼마만에 다지 안으 로 들어와서 몃남은 석한사 람과가지 누은사람을 널으키 고 치인사람을 빼노라가 바 른아페 나서는 꺽정이를 흘 낏 처다보고 고만 질겁하야 또다시 박그로 뛰어나가는데 팔다친사람 머려꿈 [illegible]람는 고 사하고 허리뼨사람 발전절던사 람도 모다 성한사람하고 가치 뛰어나갓다 차지가오를께 와 서 뒤를 돌아보며 거우발을 멈추어서 여러사람이 차지여 페 모여서는데 처잇기어려운 사람은 주저안기까지하얏다 「이걸 엇더케하면 조혼가」 차지가 여러사람을 돌라보 며 의론하듯 말을 내니 「얼른가서 도차저게 말슴하 구 사람들 오회시명을어 러지요」 「그놈이 대대감마님을 찾호 생명하지안켓슴닛가 그런 죽 일놈이 어듸잇나요 아주대 감마님케나 정경부인마님께 말슴을 잘엿줘서 별반거조 를 내시두룩하는게 조차안 흘까요―」 「아직는 둘이 저안에 남어 잇는데 우리가 가잔는 그사 람들은 엇더케하나요―」 「우리가 여긔섯스면 소용잇 슴니까 그놈이 쫏처나오기 전에 얼른 가십시다」 「그놈이 만일쫏처나오면엇 스면넘서좃처나왓지 인때까 지 꾸물거리구잇겟슴닛가」 「제가 어제밤에 꿈을 잘못 꾸엇드니 꿈땜에 너무지독 한걸이요 염구라가 걸려서 죽겟슴니다」 「저는 엉겁결에 엇더케 여 긔까지 뛰어왓지만 이젠꼼 짝못하겟슴니다」 여러사람이 죽구난방으로 짓 거리는 말이 곳이업섯다 차 지가 여러사람을 [illegible] 고 「고만둘 짓거리구 내말존 들게 내가 얼핏가서 사람 들을 데리구올테니 자네들 은 여긔잇게 저안에 남어